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Joy Credit Co., Ltd.

정기평가
평가일: 2017.12.28

| | | | |
|-------------|-----------|------|-----------|
| 평가개요 | 신용등급 | 평가대상 | 유효기간 |
| | B+ | 기업어음 | 2018.6.30 |

| | | | |
|----------------|-----------|--------------|-------------------------|
| Analyst | 이원섭 전문연구원 | 02)6966-2458 | wslee@scri.co.kr |
| | 박현희 실장 | 02)6966-2466 | hyunhee.park@scri.co.kr |

| | | | |
|----------------------|-----|-----------|----|
| Latest Rating | 구분 | 평가일 | 등급 |
| | 본평가 | 2017.5.26 | B+ |

재무요약

(단위: 억원, % 배)

| (별도기준) | 2014.12 | 2015.12 | 2016.12 | 2016.9 | 2017.9 |
|------------------|---------|---------|---------|--------|--------|
| 총자산 | 2,299 | 2,732 | 4,270 | 3,916 | 5,904 |
| 대출채권(총당금제외) | 2,035 | 2,542 | 4,069 | 3,593 | 5,320 |
| 차입부채 | 1,443 | 1,742 | 3,129 | 2,974 | 4,636 |
| 자기자본 | 740 | 835 | 1,060 | 839 | 1,155 |
| 영업수익 | 820 | 878 | 1,116 | 799 | 1,131 |
|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 505 | 492 | 558 | 315 | 712 |
| 당기순이익 | 254 | 94 | 21 | 2 | 115 |
|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23.5 | 19.6 | 15.9 | 12.6 | 18.7 |
| 총자산순이익률(ROA) | 11.8 | 3.7 | 0.6 | 0.1 | 3.0 |
| 1개월이상(1M+) 연체율 | 5.7 | 4.8 | 4.1 | 4.4 | 3.9 |
| 대손충당금/1개월이상 연체채권 | 145.0 | 144.8 | 151.1 | 136.5 | 157.5 |
| 레버리지배수 | 3.1 | 3.3 | 4.0 | 4.7 | 5.1 |
| 회계기준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주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자산평균*100
 주2: 2016.9월 및 2017.9월 재무지표는 감사받지 않은 회사 제시자료임

평가의견

서울신용평가(주)는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의 기업어음 정기평가 신용등급을 B+ 로 유지하며, 주요 평가요인은 다음과 같다.

- 대부잔액 기준 5위 (2017.9월말 기준)의 양호한 시장지위
- 상한이자율 인하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불가피
- 건당 평균대출금액 상승과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 확대로 대출자산의 건전성 관리 부담 증가
- 양호한 유동성 대응능력

■ 신용등급 논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이하 '동사')은 2017.9월말 기준 총자산 5,904억원, 자기자본 1,155억원의 외형을 보유한 일본계 대부업체이다. 2007년 설립되어 평가일 현재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과 추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대부잔액 기준 5위의 양호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지역 거점에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중개채널을 중심으로 영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17.9월말 기준 누적거래고객수는 31만 6천명, 대출채권잔액은 5,320억원, 시장점유율은 3.2% (2016년말 기준 금융감독원 대부업실태조사)로 자산 100억원 이상의 187개 대부업체 중 상위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상한이자율 인하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 2016.3월 이자율상한이 27.9%로 인하되면서 운용수익률 (대출금이자/대출채권총액평잔)은 2016.1~3분기 30.7%에서 2017.1~3분기 27.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동사는 2017.1~3분기 조달비용률 (이자비용/차입부채평잔)을 전년도 1~3분기 7.7% 대비 6.5%로 낮추는 한편, 기존고객에 대한 추가·재대출 방식의 자체영업 비중을 늘려 모집비용률 (모집비용/대출채권총액평잔)을 전년도 1~3분기 4.9% 대비 3.6%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 결과,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지배주주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 제외)은 2017.1~3분기 기준 18.2%로 전년 동기간의 18.4% 대비 미미한 하락을 보였다. 2018.2월부터 상한이자율이 24.0%로 추가 인하됨에 따라 이자마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11월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압력이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채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본완충력 및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재무안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업을 영위하는 사업구조로 경기, 규제정책 등의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5년 이후 건당 평균대출금액 상승과 만기일시상환 대출자산의 비중 확대는 외부환경 악화시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들로 향후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6.11월 200억원 규모의 주주차입금의 출자전환과 추가적인 출자전환 가능성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성차입금 중 주주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양호한 유동성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기성차입금 (2,619억원)은 2017.9월말 기준 총차입부채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차입부채 중 주주차입금 (981억원)을 제외한 단기성차입금은 35.3%로 단기차입의존도가 높은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질적인 상환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대부업의 대출포트폴리오 특성상 원리금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나, 높은 현금보유 비중과 양호한 원리금회수율, 원금상환 없이 만기연장 (1년 갱신) 되고 있는 주주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동성 위험관리는 양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신용평가(주)는 동사의 업계 내 수위권의 시장지위에 기반한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대출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로 인한 자산건전성 부담 증가, 주요 주주로부터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어음 정기평가 신용등급을 B+ 로 유지한다.

■ 모니터링 요소

서울신용평가(주)는 동사의 시장지위 및 경쟁역량의 변화를 통한 수익성 추이와 대출채권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재무적 안정성 수준의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요소는 이자율 상한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정도,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인한 자산건전성 저하 여부, 유동성 및 재무정책 등의 재무안정성 지표이다.

■ 주요 평가요소별 검토

2007년 설립된 일본계 대부업체

동사는 2007.2월 설립된 대부업체로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 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2017.9월말 기준 최대주주인 쿠니모토 마사히로 (대표이사)가 동사의 지분 50.7%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주)어드밴스 (일본소재)가 4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2016년 주주 외화차입금에 대한 출자전환 (200억원)으로 자본이 확충되어 2017.9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1,155억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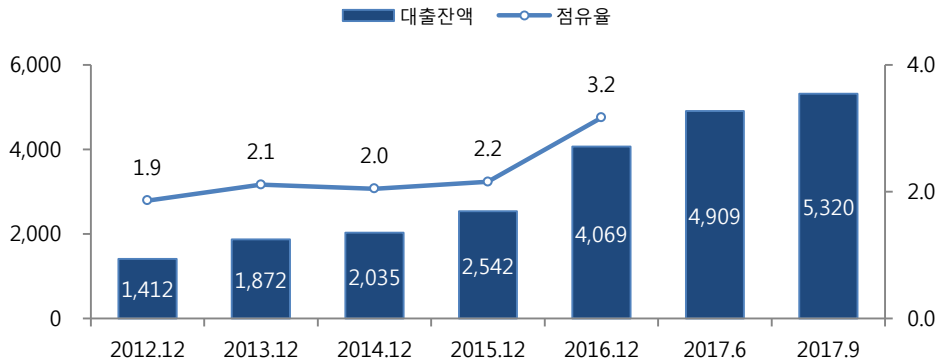
대부업계 내 양호한 시장지위

동사는 중개채널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유한 업계 상위권의 대부업체로 2014년 이후 적극적인 외형 확대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동사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187개 대부업체의 총대부잔액 (2016.12월말 12.9조원) 기준 3.2%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권 대부업체임 [그림1 참조]. TV 광고 등을 통해 자체 영업기반을 확보하여온 경쟁사들과 달리 중개채널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대출 기준 약 98%, 대출잔액 기준 약 52%가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추가대출, 재대출, 전화접수 등 영업채널 다변화 노력으로 2012년 이후 대출취급액 기준 자체 영업비중 (2015.12월말 기준 2.7%)이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6.3월 상한이자율 인하에 대응한 영업 확대 과정에서 중개업체 의존도 (2017.9월말 기준 98.1%)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그림2 참조].
- 한편, 국내 대부업계는 2010년 들어 총 4번에 걸쳐 상한이자율이 인하 되었으며, 2018.2월부터 상한이자율의 추가 인하 (현행 27.9% → 24.0%) 시행, 광고 총량 규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1] 대출채권 규모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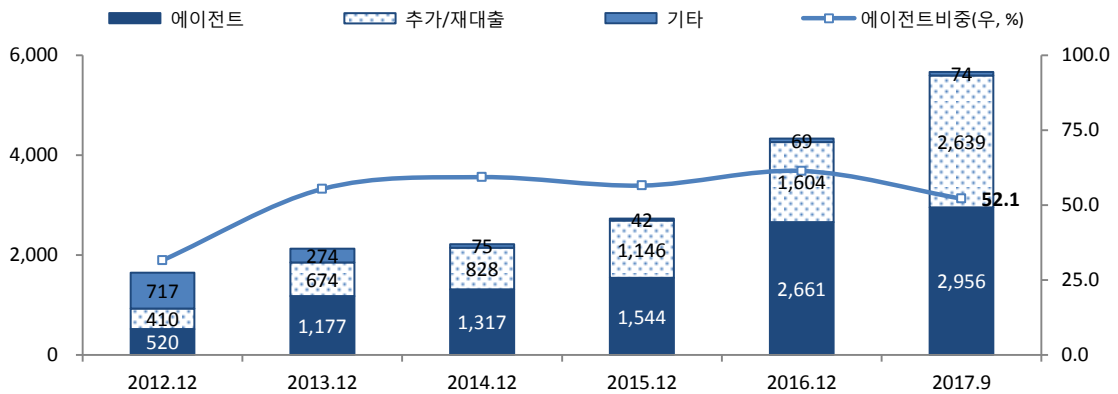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동사제시

[그림2] 영업채널별 대출채권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동사제시

주: 대출채권 규모는 총액 기준임

상한이자율 인하에 따른 구조적 수익성 저하 전망

상한이자율 인하에 따른 운용수익률 하락,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함.

- 조정총자산순이익률과 조정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지배주주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을 제외) 은 2017.1~3분기 기준 각각 2.5%, 18.2%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2018.2월부터 상한이자율이 24.0%로 추가 인하됨에 따라 이자마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11월 한국은행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압력은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동사는 중개수수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계사차입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비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은 수익성 하방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판단됨.

[표1] 수익성 추이

(단위: %)

| 구분 | 2014.12 | 2015.12 | 2016.12 | 2016.1~9 | 2017.1~9 |
|------------------|---------|---------|---------|----------|----------|
| 운영수익률 | 32.5 | 32.5 | 29.6 | 30.7 | 27.4 |
| 조달비용률 | 7.7 | 7.5 | 7.7 | 7.7 | 6.5 |
| 대손비용률 | 9.5 | 12.2 | 12.9 | 12.3 | 12.8 |
| 모집비용률 | 3.8 | 4.1 | 4.7 | 4.9 | 3.6 |
|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23.5 | 19.6 | 15.9 | 12.6 | 18.7 |
| 조정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18.3 | 22.1 | 18.6 | 18.4 | 18.2 |
| 총자산순이익률(ROA) | 11.8 | 3.7 | 0.6 | 0.1 | 3.0 |
| 조정총자산순이익률(조정ROA) | 6.6 | 6.3 | 3.2 | 5.9 | 2.5 |

자료: 동사제시, 당사 재구성

주: 조정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과 조정총자산순이익률은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하여 산출한 비율임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로 대출채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 증가

동사는 규제환경 변화 대응 과정에서 대출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으로 거액여신이 증가하고, 만기일시상환 채권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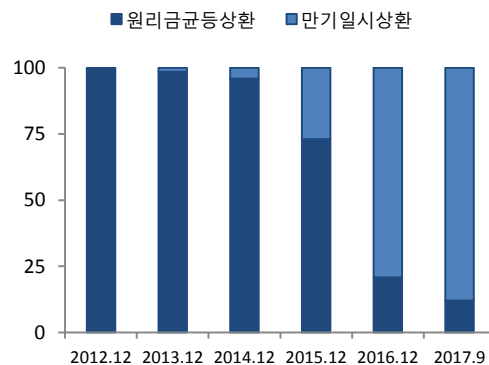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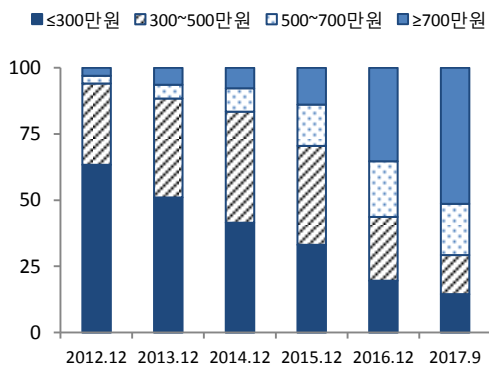
- 대출 포트폴리오의 경우 1,500만원을 한도로 소액 분산되어 있으나, 건당 평균대출금액의 상승 (대출취급액 기준, 2015.12월말 447만원 → 2017.9월말 593만원)과 700만원 이상의 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 (2015.12월말 13.9% → 2017.9월말 51.4%) 되고 있는 추세로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균 대출만기는 대부분 3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환방식의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에서 만기일시상환의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자유상환도 가능하나 연체이력이 없을 경우 만기연장 또한 가능하며, 자산 대부분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6등급 이하 차주 중심의 신용대출 (2017.9월말 대출채권총액 대비 86.7%)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건전성 유지 부담이 높은 수준임.

[그림3] 대출금액별 구성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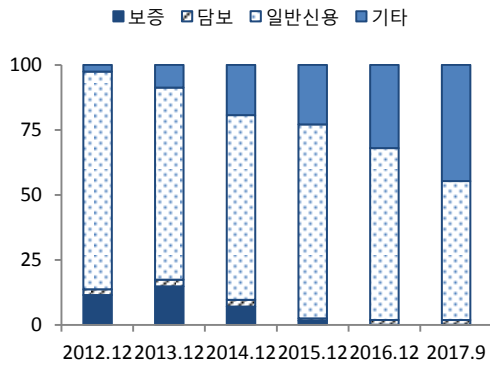
[그림4] 상환방식별 구성내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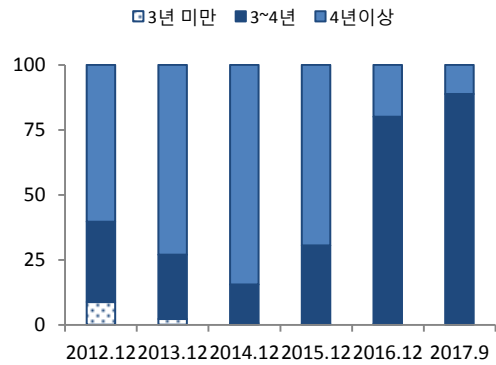


자료: 동사제시

[그림5] 대출상품별 구성내역 (단위: %)



[그림6] 대출기간별 구성내역 (단위: %)



자료: 동사제시

동사는 2007년 한국대부업 시장에 진출 후 쌓은 대출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대손비용률 및 연체율의 변동성을 낮추어왔음. 매각되지 않은 120일 이하의 연체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세부적이지 않으나, 1일 이상 연체채권을 상회하는 총당금적립규모 등을 감안하면 동사의 자산건전성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됨.

- 1일이상 및 1개월이상 연체율은 2017.9월말 기준 각각 6.0% 및 3.9%로 양호한 수준이며, 1일이상 및 1개월이상 연체채권 대비 총당금적립률은 각각 102.2% 및 157.5% 수준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손실완충력은 양호한 수준임.
- 그러나 2013년 이후 평균 400억원 (대출채권총액 대비 9.1% 수준) 내외의 대출채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급격한 대출자산의 증가에 따른 연체율 하락 효과, 대출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자산건전성 위험은 지표 대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표2]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억원, %)

| 구분 | 2014.12 | 2015.12 | 2016.12 | 2016.9 | 2017.9 |
|----------------|---------|---------|---------|--------|--------|
| 연체율(1일이상연체채권) | 8.4 | 7.2 | 6.0 | 6.5 | 6.0 |
| 총당금적립률 | 98.7 | 97.0 | 102.1 | 92.8 | 102.2 |
| 연체율(1개월이상연체채권) | 5.7 | 4.8 | 4.1 | 4.4 | 3.9 |
| 총당금적립률 | 145.0 | 144.8 | 151.1 | 136.5 | 157.5 |
| 대출채권(총액) | 2,219 | 2,733 | 4,334 | 3,823 | 5,669 |
| 연체채권(1일이상) | 187 | 197 | 260 | 248 | 342 |
| 연체채권(1개월이상) | 127 | 132 | 176 | 169 | 222 |
| 대손충당금 | 185 | 191 | 265 | 230 | 349 |

자료: 동사제시

주: 총당금적립률은 각 연체채권 대비 총 총당금적립금액임

지배주주 차입금은 자본적정성 유지에 긍정적 요소

적극적인 성장전략에 따라 국내차입금 확대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적정성 약화를 일정 부분 완화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출자전환 가능성은 동사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동사의 차입부채는 2017.9월말 기준 총 4,636억원으로 저축은행 등 국내금융기관 담보차입금 3,416억원, 특수관계인 해외차입금 1,112억원, 사모사채 10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적극적인 성장 과정에서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표상 자본적정성이 저하되었으나, 2016.11월 200억원 규모의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적정성 악화를 일정 부분 완화 하였음.
- 주주차입금의 경우 만기연장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원금 상환 없이 지속적으로 만기가 연장되어온 점과 향후 추가적인 출자전환 가능성 등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3]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억원, %, 배)

| 구분 | 2014.12 | 2015.12 | 2016.12 | 2016.9 | 2017.9 |
|--------|---------|---------|---------|--------|--------|
| 총자산 | 2,299 | 2,732 | 4,270 | 3,916 | 5,904 |
| 차입부채 | 1,443 | 1,742 | 3,129 | 2,974 | 4,636 |
| 자기자본 | 740 | 835 | 1,060 | 839 | 1,155 |
| 레버리지배수 | 3.1 | 3.3 | 4.0 | 4.7 | 5.1 |
| 자기자본비율 | 32.2 | 30.5 | 24.8 | 21.4 | 19.6 |

자료: 동사제시

양호한 유동성 대응능력

양호한 원리금회수율, 원금상환 없이 만기연장 (1년 갱신) 되고 있는 주주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동성 위험관리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의 대출포트폴리오 특성상 원리금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나, 높은 현금보유 비중과 양호한 원리금회수율, 원금상환 없이 만기연장 (1년 갱신) 되고 있는 주주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동성 위험관리는 양호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성차입금 (2,619억원)은 2017.9월말 기준 총차입부채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성차입금 중 주주차입금 (981억원)을 제외한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35.3%로 단기차입의존도가 높은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실질적인 상환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단기성차입금 60% 이상이 6개월 이후 시점에 상환스케줄이 집중되어 있으나, 동사의 월평균 원리금회수액 (최근 12개월 기준 322억원, 대출잔액 대비 원리금회수율 6.7%)과 2017.9월말 기준 보유 현금성자산 (483억원) 등을 감안하면 충당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표4]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성차입금 만기일정

(단위: 억원)

| 구분 | 2017.12 | 2018.3 | 2018.6 | 2018.9 | 합계 |
|---------------|---------|--------|--------|--------|-------|
| 국내차입금 | 168 | 394 | 212 | 864 | 1,638 |
| 차입금 | 168 | 394 | 212 | 854 | 1,628 |
| 사채 | - | - | - | 10 | 10 |
| 외화차입금 (특수관계인) | 164 | 295 | 256 | 266 | 981 |
| 차입금 합계 | 333 | 688 | 468 | 1,130 | 2,619 |

자료: 동사제시, 당사 재구성

주: 차입금 합계는 해당 시점까지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의 합계금액임(2017.11월, 최근월말 기준임)

본 평가는 서울신용평가(주)가 공시한 여신전문금융 평가방법론을 준용하였습니다. 공시된 신용평가방법론은 서울신용평가(주) 홈페이지 www.scri.co.kr의 Research/평가방법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이용한 중요자료는 감사보고서, 업무보고서, 경영공시자료, 차입금 현황 등입니다.

[단기신용등급의 정의]

| 신용등급 | 정 의 |
|------|---|
| A1 |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이어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음. |
| A2 |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 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 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그 안정성에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 |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되어 투기적 요소가 강함. |
| D |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주1: 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월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기할 수 있음.

주2: 상기 등급 중 A1등급에서 A3등급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 C 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본 신용평가의 평가개시일은 2017년 12월 19일이며, 평가완료일은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다른 신용평가 건수 및 수수료총액은 각각 1건, 7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신용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요청인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근 2년간 평가요청인과 체결한 비평가용역계약 체결 건수 및 수수료 총액은 0건, 0백만원이며, 당사는 평가완료일 현재 평가요청인의 다른 비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현재시점에서의 서울신용평가(주)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시장가치 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은 법령, 조세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위험에 대하여 예측한 의견으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견해는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평가의견 및 간행물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의 투자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간행물 등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사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신용평가서, 평가의견, 간행물 등 보고서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각종 공시자료 등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자 또는 의뢰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분석자, 분석도구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결정시에 활용되었거나 본 보고서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기재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합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며,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서울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 재판매 또는 유포될 수 없습니다.

| (별도)재무지표(단위: 억원) | 2014.12 | 2015.12 | 2016.12 | 2016.9 | 2017.9 |
|------------------|--------------|--------------|--------------|--------------|--------------|
| 회계기준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일반 |
| B/S | | | | | |
| 현금및예치금 | 222 | 141 | 127 | 258 | 483 |
| 유가증권 | 4 | 5 | 12 | 8 | 5 |
| 대출채권 | 2,035 | 2,542 | 4,069 | 3,593 | 5,320 |
| 대출채권총액 | 2,219 | 2,733 | 4,334 | 3,823 | 5,669 |
| (대손충당금) | (185) | (191) | (265) | (230) | (349) |
| 유형자산 | 2 | 3 | 4 | 4 | 6 |
| 무형자산 | 3 | 2 | 1 | 2 | 1 |
| 기타자산 | 34 | 39 | 57 | 53 | 90 |
| 자산총계 | 2,299 | 2,732 | 4,270 | 3,916 | 5,904 |
| 차입부채 | 1,443 | 1,742 | 3,129 | 2,974 | 4,636 |
| 차입금 | 1,443 | 1,742 | 3,122 | 2,974 | 4,528 |
| 사채 | - | - | 7 | - | 109 |
| 기타부채 | 116 | 155 | 81 | 104 | 113 |
| 부채총계 | 1,559 | 1,898 | 3,210 | 3,077 | 4,749 |
| 자본금 | 100 | 100 | 300 | 100 | 300 |
| 이익잉여금 | 640 | 734 | 755 | 736 | 855 |
| 자본총계 | 740 | 835 | 1,060 | 839 | 1,155 |
| I/S | | | | | |
| 영업수익 | 820 | 878 | 1,116 | 799 | 1,131 |
| 이자수익 | 708 | 806 | 1,048 | 756 | 1,029 |
| 대출금이자 | 706 | 805 | 1,047 | 755 | 1,028 |
| 예치금이자 | 2 | 1 | 1 | 1 | 1 |
|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 0 | 71 | 67 | 42 | 83 |
| 기타영업수익 | 112 | 2 | 1 | 1 | 19 |
| 영업비용 | 494 | 758 | 1,082 | 826 | 983 |
| 이자비용 | 111 | 119 | 187 | 136 | 190 |
|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 206 | 374 | 524 | 343 | 565 |
| 대손상각비 | 180 | 372 | 524 | 342 | 565 |
| 대출채권처분손실 | 26 | 2 | 0 | 1 | 0 |
| 모집비용 | 82 | 103 | 167 | 121 | 135 |
| 수수료비용 | 81 | 101 | 162 | 117 | 133 |
| 광고선전비 | 1 | 2 | 5 | 4 | 2 |
| 판매비및관리비 | 95 | 96 | 110 | 81 | 93 |
| 기타비용 | 0 | 66 | 94 | 145 | - |
| 영업이익 | 325 | 120 | 34 | -27 | 148 |
|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 | 505 | 492 | 558 | 315 | 712 |
| 영업외수익 | 1 | 0 | 0 | 0 | 0 |
| 영업외비용 | 0 | 0 | 0 | 0 | 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26 | 120 | 34 | -27 | 148 |
| 당기순이익 | 254 | 94 | 21 | 2 | 115 |

| 비율분석(%) | 2014.12 | 2015.12 | 2016.12 | 2016.9 | 2017.9 |
|-----------------|---------|---------|---------|--------|--------|
| 수익성 | | | | | |
| 총자산순이익률(ROA) | 11.8 | 3.7 | 0.6 | 0.1 | 3.0 |
|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23.5 | 19.6 | 15.9 | 12.6 | 18.7 |
| 자산건전성 | | | | | |
| 1개월 이상(1M+) 연체율 | 5.7 | 4.8 | 4.1 | 4.4 | 3.9 |
| 총당금적립률 | 8.3 | 7.0 | 6.1 | 6.0 | 6.2 |
| 자본적정성 | | | | | |
| 레버리지배수(배) | 3.1 | 3.3 | 4.0 | 4.7 | 5.1 |
| 자기자본비율 | 32.2 | 30.5 | 24.8 | 21.4 | 19.6 |
| 유동성 | | | | | |
| 단기성차입금비중 | 84.0 | 71.1 | 58.2 | 57.0 | 56.5 |
| 성장성 | | | | | |
| 총자산증감률 | 14.5 | 18.9 | 56.3 | 51.9 | 50.8 |
| 대출채권증감률(총액기준) | 4.4 | 23.1 | 58.6 | 39.9 | 30.8 |

주1: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영업이익+대손상각비)/총자산평균잔*100

주2: 총당금적립률(%)=대손총당금/대출채권(총액)*100

주3: 단기성차입금비중(%)=(단기차입부채+유동성장기차입부채)/차입부채*100

주4: 운용수익률(%)=대출금이자/대출채권(총액)평균잔*100, 조달비용률(%)=이자비용/차입부채평균잔*100, 대손비용률(%)=대출채권평가처분손익/대출채권(총액)평균잔*100, 모집비용률(%)=모집비용/대출채권(총액)평균잔*100